

2 0 2 3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Sharing Jesus!

VOL.19

2023 7-8



기적 같은 만남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복음성가

지 478장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1-7, 28-34

- 0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 0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0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0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 0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 06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 07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장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1.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도구로 요셉의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요셉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되었고 요셉과 그의 가족은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가문은 한 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기적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2. 하루아침에 야곱의 모든 가족은 낯선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신앙은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등장으로 다시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드라마틱 하게 이끄신 사건들을 가족들에게 간증해 보세요.

좋은 환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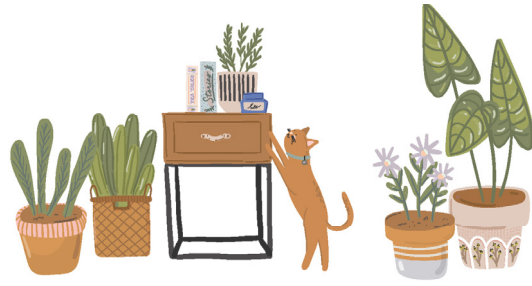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복음성가

지 406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1-12

- 0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 0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 0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 0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 0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 0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 0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 0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 0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1. 아버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비로소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신임했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창 41:38-39).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 역시 환영했고,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었을 뿐 아니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힘겨웠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이방인이기에 많은 위협과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바로 왕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인지 묻고, 야곱은 자신이 짧은 세월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대답합니다. 130년 세월 돌아보니, 젊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후회 가득한 행실도 있었고, 여러 가정사로 인해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매우 고달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도감이 생겼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축복의 통로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복음성가

지 409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 13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 14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 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 16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 17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 18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 19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 20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 21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뒀으나
- 22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다
- 23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 24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 25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 26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 꿈을 통해 예고된 7년의 기근 중에 아직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 먹을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가축을, 가축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땅을 바쳤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모든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혜는 요셉 단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의 권력자를 축복하고 지혜로운 정책으로 나라를 구한 요셉이 바로와 애굽 땅에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의 통로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기근으로 애굽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살려달라는 요청에 요셉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 제안을 수용하고 바로의 땅을 일구는 영구적인 소작민이 되어 매년 모든 작물의 1/5를 땅의 주인인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작물로는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존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펴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망의 자리, 은혜의 시간



찬송가

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복음성가

하늘 소망

- 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 28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 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 31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생활한지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야곱의 나이도 어느덧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허벅지 아래는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곳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으면 그 시신을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장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애굽에서 40년이란 시간을 평안하게 보냈지만 이 땅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가야 하고, 그 자손들도 가야 할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2. 오늘 성경은 애굽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보낸 40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40년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주는 평안에 빠져서 40년이 지났고, 죽음을 앞두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며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안주하고 타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고 있나요? 세상의 것을 따라 안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천국은 마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복음성가

지 376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44-52

-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1.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거나 값진 진주를 살 충분한 이유를 주는 곳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좋고 나쁜 것을 나누는 어부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은 평가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형벌과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거라사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능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복음성가

지 311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 26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 27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므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 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 32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 34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 35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 36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 37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 38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1.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청년은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을 괴롭히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군대와 같이 수많은 귀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의 면모가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2.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옷을 벗어 던지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잠잠히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본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군대 귀신이 들어가 몰살하게 된 돼지 떼에서 찾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들린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아까운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돼지들은 한 영혼의 구원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토록 절실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복음성가

지 59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 회당장 아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발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거나 강론하고 재정 관리를 맡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역에서 부유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자신의 이러한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부탁에 반응하셨고, 함께 아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중에 아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큰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닌 아이로처럼 그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 가던 중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겔옷에 손을 댍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아이로의 믿음보다 컸습니다. 아이로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딸이 살아날 것으로 확신했지만, 여인은 주님의 겔옷만 만져도 나올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간절한 소망이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놀라운 크고 작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복음성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35-43

-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1. 회당장 아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아이로의 딸을 만나러 출발하셨는데 중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그 사이 아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로에게 가장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집에 같이 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서 시작하십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2. 예수님께서서 아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선지자나 선생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 그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 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3. 지금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족 기도제목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A few additional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귀한 선물인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지혜, 총명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현숙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지켜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존귀한 남편을 신뢰하고, 용기를 주길 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늘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여호와가 **자녀이름**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자녀이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녀이름**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녀이름**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모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에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닛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